

眉巖 柳希春 시문의 수사적 표현 기법 양상*⁶⁵⁾

박명희**

<차 례>

1. 머리말
2. 수사적 표현 기법 양상
 - 1) 隱喻的 표현과 의미 전달의 다양함
 - 2) 詩題를 통한 象徴과 重義性的 추구
 - 3) 典故를 통한 引喻와 의미의 극대화
3. 표현 기법에 대한 시각과 의의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고는 眉巖 柳希春 한시에 나타난 수사적 표현 기법 양상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의를 구명해보고자 작성하였다.

『미암집』권1과 2에는 총 282수의 시가 수록 정리되어 있는데, 유희춘이 시를 형상화함에 있어 주로 활용한 수사적 표현 기법으로는 隱喻와 象徴, 引喻 등이 있었다. 유희춘은 시에서 은유적 표현 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하였는데, 첫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뚜렷하게 연관되는 경우, 둘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보조관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셋째 한 작품 안에 여러 보조관념이 나와서 결국 원관념을 유추하게 하는 경우, 넷째 한 작품 안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보조관념이 연속으로 나와 마찬가지로 원관념을 유추하게 하는 경우, 다섯째 하나의 보조관념을 시의 처음에 제시한 후 이것으로써 마지막까지 내용을 이끌어가는 은유의 기법을 활용하는 등등 의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547).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를 전달하는 기법이 실로 다양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희춘의 시 중에는 제목을 통해 상징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한 작품이 있는데, 상징적이기 때문에 단일의 의미보다는 중의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유희춘은 博覽強記한 사람으로서 시를 창작함에 있어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그러한 박람강기함은 결국 시에 나타난 전고 운용 실태를 보고서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희춘을 학자로 보는 한편, 문예 기질이 풍부한 문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대변해주는 것이 수사적 표현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희춘에게 있어 수사적 표현 기법을 활용한 작품은 최고의 문예미를 자랑하는 것으로서의 의의를 지녔다고 보았다.

핵심어 : 眉巖 柳希春, 『眉巖集』, 수사적 표현, 유배, 隱喻, 象徵, 引喻, 典故

1. 머리말

본 논고는 眉巖 柳希春(1513~1577) 한시에 나타난 수사적 표현 기법 양상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의를 구명해보고자 작성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희춘이 시를 형상화함에 있어 활용한 수사적 표현 기법은 무엇이며, 이러한 기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각을 정리한 후 의의를 부여하려는 것이 본 논고의 최종 목표이다.

동양의 문학 전통에서 시의 수사적 표현 기법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대상으로 삼는 것은 『詩經』 六義에 포함된 賦·比·興이다. 이 세 가지를 『周禮』 「春官」 권23에 근거해 개념 정의해 보자면, 부는 현재의 정치적인 모습을 그대로 펼쳐내는 것이고, 비는 현재의 國政이 잘못됨을 보고서 그것을 감히 배척하여 말할 수 없기에 비유될 수 있는 말을 빌어

하는 것이며, 흥은 현재 治者들의 미덕을 그대로 칭찬하면 아침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한 일들을 취하여 간접적으로 권유하는 것이다¹⁾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부는 단순한 수식법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요, 비는 비유법으로서 다른 사물이나 자연물에 감정을 기탁하는 것이며, 흥은 비슷한 자연물 또는 자연 현상을 노래하여 시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한편, 육조시대 劉勰은 그의 문학 비평서인 『文心雕龍』에서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강조했는데, 특히 「情采」 제31에서 비유적인 기법을 통해 ‘虎豹에 무늬가 없다면 가죽은 개나 양과 같다. 코뿔소의 毛皮도 붉은 물감으로 염색 처리 된 것으로 내용은 장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²⁾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論語』 「雍也」편에 나온 ‘文質彬彬’과 같은 것으로 결국 한 편의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문인들의 경우, 대체로 ‘文以載道’ 또는 ‘文以貫道的’인 관점에서 浮華한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우선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조선조 초기에 있었던 金宗直과 成倪의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종직은 宗經的인 입장에서 ‘문장이라는 것은 經術에서 나오는 것이니 경술이 곧 문장의 근본이다. 초목에 비유하자면 뿌리가 없이 어찌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며 꽃과 열매가 곱고 빼어날 수 있겠는가.’³⁾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성현은 詞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비유하건대 마치 庭園樹는 가지와 꽃과 잎사귀가 우거진 뒤에라야 뿌리를 보호하여 나무가 반드시 크게 무성해지는 것과 같다.’⁴⁾라고 하여 김종직의 문학관과

1) 『周禮』 「春官」 권23, 賦之言鋪 直鋪陳今之政教善惡 比 見今之失 不敢斥言 取比類以言之 興 見今之美 嫌於媚諛 取善事以喻勸之.

2) 『文心雕龍』 제31 「情采」, 虎豹無文 則鞞同犬羊 犀兕有皮 而色資丹漆 質待文也.

3) 金宗直, 『佔畢齋文集』 권1, 「尹先生祥詩集序」,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 乃文章之根柢也 譬之草木焉 安有無根柢 而柯葉之條鬯 華實之穠秀者乎.

4) 成倪, 『虛白堂文集』 권13, 雜著, 「文變」, 譬如庭樹 枝柯花葉紛鬱 然後得庇本根 而樹必碩茂.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논쟁은 종종조에 이르면, 道學派와 詞章派간의 政爭으로까지 번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두 세력 간의 정쟁이 있던 조금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한 유희춘은 문학(시를 포함)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었던가? 사실 그의 문집 『眉巖集』과 근 10년 동안 하루하루의 기록은 담은 『眉巖日記』 등을 살펴보면, 문학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대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奇正鎭도 『미암집』 서문에서 유희춘의 학문을 논의하는 가운데 ‘詞章으로 마음을 구속하지 않았다.’⁵⁾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유희춘은 문학에 치중한 문인이라기보다는 經世論者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多讀과 強記가 特長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또한 기억하면서 시를 창작함에 典故로 활용하였다.⁶⁾ 또한 1547년(명종3)에 발생했던 良才驛壁書事件으로 인하여 19년 간 함경도 鍾城에서 유배 생활을 마친 후 관직에 복직한 다음에 있는 經筵 자리에서도 자신의 博覽強記를 십분 발휘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선조가 이를 기특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한편 時弊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못했다 하여 栗谷 李珣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⁷⁾ 다시 말해, 유희춘은 수많은 전적들을 섭렵하여 이의 내용을 기억했으며, 또한 생활에까지 활용하려했던 경제론자로서 학자적 면모가 강한 문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처럼 사장에 치중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암집』권1과 2에는 총 282수의 시가 수록 정리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현 기법이다. 유희춘의 시에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도 있지만, 시를 형상화함에 있어 수사적 표현 기법을 쓰

5) 柳希春, 『眉巖集』序(奇正鎭), ……不以詞章累其心…….

6) 이에 대해서는 박명희의 논문(「眉巖 柳希春 시문의 典故 運用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제4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12)을 참조할 것.

7) 이에 대한 기록은 『國朝寶鑑』 제26권, 선조조 3, 10년조와 李珣의 『石潭日記』 권 하에 나오는데, 자세한 논의는 박명희의 논문(「眉巖 柳希春의 詠史詩에 나타난 思惟와 지향」, 『한국언어문학』제82집, 한국언어학회, 2012.9, 172쪽)을 참조할 것.

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원관념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관념을 끌어다 활용하는 비유의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전고를 운용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희춘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고의 운용 유무와 출처 등을 파악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 여러 경로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⁸⁾ 또 한 가지 유희춘은 몇 작품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감추기’를 시도하여 모호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표현 기법에 치중하여 유희춘의 시를 분석, 정리하여 이러한 문학적 장치가 궁극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희춘 연구 성과 중에서 이러한 논의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으며,⁹⁾ 결국 본 논고가 추구하고자 한 연구 방향이 문학 작품의 내용 이해에 그쳤다가 보다는 ‘어떻게’ 표출했는가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2. 수사적 표현 기법 양상

유희춘이 시를 형상화함에 있어 주로 활용한 수사적 표현 기법으로는

-
- 8) 이러한 유희춘 시의 전고 운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명희의 전제논문(2012.12)을 참조할 것.
- 9) 그동안 발표된 유희춘의 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송재용, 「미암 유희춘의 시세계 -한시와 시조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30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0 ; 김종성, 「미암 유희춘의 한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황수정(2006)황수정, 「미암 유희춘 문학 연구」, 『한국한시연구』 제14집, 한국한시학회, 2006 ;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유배기 문학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32집, 동양고전학회, 2008 ; 박명희, 「미암 유희춘 시문의 典故 運用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4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 박명희, 「미암 유희춘 시문에 나타난 鍾城 유배기 활동 양상」, 『고시가연구』29집, 한국고시가학회, 2012 ; 박명희, 「미암 유희춘 시에 구현된 尊朱子 의식」, 『국학연구론총』 제9집, 태민국학연구원, 2012 ; 박명희, 「미암 유희춘의 詠史詩에 나타난 思惟와 지향」, 『한국언어문학』 제82집, 한국언어문학회, 2012.

隱喩와 象徵, 引喩 등이 있다. 은유는 비유법 중 하나로 연결어 없이 어떤 대상을 그것과 유사하지만 성질이 다른 대상으로 置換하는 것으로 대상들 사이의 의미론적 轉移를 시도하면서 동일성을 모색해가는 것이다.¹⁰⁾ 상징은 은유가 두 관념(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내세워 그들 사이의 공통점과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원관념은 숨어버리고 감각적 대상으로서의 보조관념만 나타나 원관념의 의미를 대신하는 경우이다.¹¹⁾ 인유는 저명한 事蹟, 典故 또는 古人的 文辭를 인용하여 문장을 꾸미고 文趣를 풍부하게 하는 수사법의 한 가지이다.¹²⁾ 이러한 수사적 표현 기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1) 隱喩的 表現과 의미 전달의 다양함

유희춘은 시에서 은유적 표현 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가령, 첫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뚜렷하게 연관되는 경우, 둘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보조관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셋째 한 작품 안에 여러 보조관념이 나와서 결국 원관념을 유추하게 하는 경우, 넷째 한 작품 안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보조관념이 연속으로 나와 마찬가지로 원관념을 유추하게 하는 경우, 다섯째 하나의 보조관념을 시의 처음에 제시한 후 이것으로써 마지막까지 내용을 이끌어가는 은유의 기법을 활용하는 등등 의미를 전달하는 기법이 실로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뚜렷하게 연관되어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의 작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龍興江上水仙花 용흥강가의 수선화야
何事飄來豆滿涯 무슨 일로 두만강까지 흘러 왔나

10) 김동수, 『시적 발상과 창작』, 천년의 시작, 2008, 95쪽 참조.

11) 김동수, 전게서, 102~103쪽 참조.

12)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23&docId=940080&mobile&categoryId=3423>
참조

知是江梅交雪李 알패라, 강매가 눈 속 오얏과 사귀지만
肯同蜂蝶若春葩¹³⁾ 어찌 벌·나비가 봄꽃 찾음과 같을까

②

鼓瑟琴中遇賞音 비파와 거문고를 타다 지음을 만났으니
古朱今李契尤深 옛 주씨와 지금의 이씨 교분이 더욱 깊네
獻芹更遇鹽梅漿 정성 바쳐 다시 재상으로 임명되었으니
楊柳從來直木尋¹⁴⁾ 버드나무는 본래 곧은 나무를 찾는다네

③

十年磨劍凜奇容 십 년 동안 칼 갈아 늠름하고 기특한 용모
一夕詞場試利鋒 하루 저녁 과장에서 날카로운 필봉 시험하네
碧海長鯨曾快斫 푸른 바다 큰 고래 일찍이 시원스레 쪼개더니
秋來雲際又屠龍¹⁵⁾ 가을 되자 구름 사이에서 또 용을 죽이네

작품 ①의 시제를 풀어보면, ‘장난삼아 우계에게 주다’이다. 우계는 당시 중성부사인 李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감의 본관이 우계이기 때문이다. 기구에 나오는 龍興江은 함경도 永興大都護府에 있는 강 이름으로 이감이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따라서 기구에서 말한 보조관념으로서의 ‘용흥강가의 수선화’는 원관념 이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승구의 ‘두만강’은 기구의 ‘용흥강’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작자 유희춘이 있는 곳을 상징화했다고 하겠다. 또한 결구의 보조관념 ‘벌·나비’와 ‘봄꽃’은 각각 원관념 이감과 유희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작품 ②의 시제는 ‘곧은 나무를 읊다’인데, 작품 말미에 ‘이는 이습지와 정승 이탁을 가리킨다.[李指李習之及李政丞鐸]’라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곧은 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이습지와 이탁이라고 할 수 있다. 習之는 李中悅의 자로 1545년 을사사화에 연루된 李輝를 변호하다가 과직되어 이듬해 갑산에 유배되고, 1547년 사사되었다. 용모가 준수하고 태도가

13) 柳希春, 『眉巖集』卷1, 「戲投羽溪」

14) 柳希春, 『眉巖集』卷1, 「直木吟」

15) 柳希春, 『眉巖集』卷1, 「送門生赴會圍」

의젓하여 조정에 있을 때 李滉에게 인정을 받았고, 유희춘과 친하게 지냈다. 이탁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1535년(중종30)에 문과에 급제했으며, 1564년(명종19)에는 대사헌에 올라 尹元衡을 탄핵한 바 있다. 『大東野乘』에 ‘이탁은 지위가 정승에 이었으나 오직 녹봉으로만 생계를 꾸리며 治産은 추하게 여기니, 끼니를 잇기에 급급하였다. 지방에서 혹 먹을 것을 보내오면 반드시 이웃과 친구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니, 부엌에는 남겨 둔 것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청빈한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은유의 표현 기법이 활용된 부분은 결구이며, ‘버드나무’와 ‘곧은 나무’가 보조관념으로 쓰였는데, 각각 원관념 유희춘과 이습지, 이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작품 ③의 시제를 풀어보면, ‘회시를 보러가는 제자를 전송하며’이다. 회시는 문·무과 과거의 初試 급제자가 서울에 모여 제2차로 보는 시험으로 覆試라고도 한다. 시제의 의미로 보자면, 유희춘의 제자가 초시에 급제한 후 복시를 보러가게 되었는데, 제자를 전송하면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기구에서는 제자가 10년 동안 과거시험 공부를 한 것과 용모에 대해 말하였고, 승구에서는 과거시험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제자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전구와 결구에서 은유법을 활용했는데, 전자에서는 ‘푸른 바다 큰 고래’를, 후자에서는 ‘용’을 보조관념으로써 말하였다. 여기에서 원관념과 연관지어 보자면, ‘푸른 바다 큰 고래’는 초시를, ‘용’은 복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작품들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뚜렷하게 연관되기에 의미를 파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런데 다음 작품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보조관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다.

初如議婚鼠	처음엔 <u>쥐</u> 와 혼사 의논할 듯하다가
還似定名松	되레 <u>소나무</u> 이름으로 정하였네
陶翟無窮樂	도잠과 적씨의 끝없는 즐거움은

須尋安分中¹⁶⁾ 반드시 분수 지킴에서 찾아야 하리

이 작품의 시제를 풀이해 보면, ‘다시 德峯 아래에서 살까 하다가 옮기지 않겠다고 成仲에게 보이다’이다. 이 작품은 앞에서 본 세 작품과 달리 작자의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시제에 나오는 ‘德峯’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유희춘의 부인인 宋鍾介의 호이고, ‘成仲’은 부인의 자이다. 유희춘과 부인 송덕봉은 금슬 좋기로 유명한데, 전주에서 중국 東晉 때의 문인인 ‘陶潛’과 그의 부인인 ‘翟氏’를 들어 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은유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기구와 승구로 ‘鼠’와 ‘松’ 성씨 ‘徐’와 ‘宋’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의 내용을 이해하자면, 처음에는 ‘서씨’ 성을 가진 남자와 혼사가 오고가다가 나중에는 ‘송씨’ 성을 가진 송덕봉으로 결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위 작품을 이해하는 주요점은 바로 기구와 승구의 은유법이며, 만일 작자 주변의 상황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하겠다.

셋째, 유희춘은 한 작품 안에 여러 보조관념이 나와서 결국 원관념을 유추하게 만드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다음의 「黃鸝一首送許演」이라는 작품이 이에 해당하는데, 24구의 장편 고체시로 전부 인용할 수는 없고, 해당되는 앞부분만 들어본다.

黃鸝來何處	어디에서 온 <u>피꼬리</u> 인가
沙漠驚好音	좋은 노래로 사막을 놀래키네
翱翔漢江滸	한강물에서 훨훨 날다가
邂逅紇干禽	<u>흘간산의 참새</u> 와 해후하였네
學習俛鷹隼	날개 짓 <u>새매</u> 와 대등히 배워
從叢飛上岑	숲에서 산꼭대기까지 날아오르네
睨院隨春風	맑고 고운 소리 봄바람에 전하니
百禽皆盍簪 ¹⁷⁾	<u>온갖 새들</u> 다투어 날아 모이네

(이하 생략)

16) 柳希春, 『眉巖集』卷2, 「更思留住德峯下不爲遷居計示成仲」

17) 柳希春, 『眉巖集』卷1, 「黃鸝一首送許演」

이 작품의 시체를 풀이해 보면, ‘피꼬리 시 한 수로 許演을 떠나보내며’로, 1구의 ‘피꼬리’, 4구의 ‘홀간새의 참새’, 5구의 ‘새매’, 8구의 ‘온갖 새’ 등이 보조관념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조관념에 대한 원관념을 찾아본다면, 1구의 ‘피꼬리’는 ‘허연’, 4구의 ‘홀간새의 참새’는 시의 작자인 유희춘, 5구의 ‘새매’는 허연과 유희춘을 제외한 훌륭한 다른 사람들, 8구의 ‘온갖 새’는 허연·유희춘 등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알고, 다시 한 번 시의 의미를 새겨본다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작가 유희춘은 허연을 피꼬리로 비유하여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듯이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그 피꼬리는 좋은 노래로 사막을 놀래켰다고 하여 허연이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3구에서는 허연이 한양에서 벼슬살이했음을 나타내었고, 4구에서는 유희춘과 허연이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유희춘 자신을 홀간산의 참새로써 비유하였다. 홀간산의 참새는 떠도는 신세를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유배 온 유희춘을 가리킨다. 홀간산은 중국 山西省 大同市의 동쪽에 있으며, 紇乾山 또는 紇眞山 등으로 불리는데, 이 산 정상은 여름에도 눈이 쌓여 있을 정도로 늘 춥다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홀간산과 관련하여 ‘홀간산 꼭대기 얼어 죽는 참새들, 어찌하여 좋은 곳에 날아가 살지 않나.[紇干山頭凍殺雀 何不飛去生樂處]’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유희춘은 자신의 유배지인 함경도 종성을 홀간산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5~6구에서는 허연이 북방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사귀는 모습을, 7~8구에서는 허연에게 동화되어 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그렸다. 결국 이 작품은 여러 보조관념을 말함으로써 여러 원관념을 유추하게 만들었으며, 이로써 은유가 의미를 전달하는 한 방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유희춘은 한 작품 안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보조관념을 연속적으로 내보냄으로써 원관념을 유추하게 만드는 은유법을 활용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이 『미암집』권1의 첫 번째 시 「感興」이다. 이 작품은 20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 내용을 인용할 수는 없고, 보조관념이 나

오는 14구까지 인용해본다.

魯鄒秋陽沒	추로 땅에 가을 햇별 저무니
冥冥夜何長	어둡고 어두운 밤 왜 이리 기나
名儒雖衛道	명유가 비록 도학을 보호하나
星有小大芒	별에 크고 작은 빛 있음 같았네
濂關弦月出	염관에 초승달 떠오르니
河洛望宵昌	하락엔 보름달 밝아오네
卓哉紫陽山	빼어나도다, 자양산이여
瑞日湧扶桑	상서로운 해 부상에 솟네
乾坤倏白晝	건곤은 대낮처럼 밝으니
萬微盡昭彰	온갖 오묘함 다 드러내어
有目皆可觀	눈으로 모두 볼 수 있으나
但當尊康莊	다만 큰 길 높여야 하리
云何二三子	어이하여 두세 학자들은
沾沾借隙光 ¹⁸⁾	경망스레 틈새 빛 빌리는가

(이하 생략)

유희춘은 尊朱意識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의식은 시를 통해 발현시켰는데, 위 「감흥」작품도 이와 관련된다. 朱熹는 初唐 陳子昂의 「感遇」시의 영향을 받아 「齋居感興」20수를 남긴 바가 있고, 유희춘은 주희의 영향을 받아 「감흥」 4수를 남겼기 때문이다. 위 「감흥」 시는 4수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데, 孔孟으로부터 시작한 유학이 침체되었다가 송 때 여러 학자들에 의해 유학이 다시 일어난 것, 그리고 王守仁 같이 陽明學을 일으켜 유학을 어지럽혔던 일 등을 담았다.¹⁹⁾

먼저 1구에서 언급한 ‘魯鄒’는 보통 ‘추로’라고 하는데, 孔子와 孟子가 태어난 곳을 가리킨다. 그런데 ‘추로 땅에 가을 햇별 저무니’라고 했으니, 孔孟의 유학이 끊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유학은 ‘어둡고 어두

18) 柳希春, 『眉巖集』 卷1, 「感興」

19) 박명희, 「미암 유희춘 시에 구현된 尊朱子 의식」, 『국학연구론총』 제9집, 태민국학연구원, 2012, 279쪽 참조.

운 밤'처럼 좀처럼 활기를 찾기가 힘들었고, 비록 몇몇의 名儒가 도학을 보호하기는 했지만, 별에 크고 작은 빛이 있는 듯이 반짝하다가 사라졌다고 표현하였다. 아마도 漢·唐 시절 간신히 유학의 흐름이 이어지던 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어 5구부터 북송과 남송 시절 유학이 다시 한 번 일어난 것을 말하였는데, '濂關'과 '河洛', '紫陽山' 등의 시어가 이러한 내용을 대변해주고 있다. 염관은 濂·洛·關·閩의 준말로 濂溪의 周敦頤, 洛陽의 程顥·程頤 형제, 關中の 張載, 閩中の 주희가 태어난 곳을 가리킨다. 즉, 염계의 주돈이로부터 시작된 북송의 유학이 정호·정이 형제를 지나 남송의 주희까지 이르렀는데, 특히 주희에 이르러서는 상서로운 해가 솟아난 것과 같다고 하여 크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양산은 주희가 학당을 세웠던 산 이름이다. 유희춘은 이때를 '건곤은 대낮처럼 밝아 온갖 오묘함 다 드러냈다.'고 하여 극찬해마지 않았다. 그러면서 '康莊'이라는 말을 빌어 공맹의 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강장'은 『爾雅』「釋宮」의 '다섯 가닥으로 통한 길은 강이라 하고, 여섯 가닥으로 통한 길은 장이라 한다.[五達爲之康 六康爲之莊]'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흔히 변화한 거리 또는 사통팔달의 큰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공맹의 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이 공맹의 도를 높여야 하는데, 두세 학자들은 '뜸새 빛'을 빌려 경망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하며 비판하고 있다. 경망스러운 행동을 한 두세 학자들은 왕수인과 같이 정통 유학과 다른 학문을 펼친 이들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감홍」 작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설적으로 내용을 이끌기 보다는 은유의 방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비슷한 의미를 가진 보조관념들인 '가을 햇볕', '크고 작은 빛', '초승달', '보름달', '상서로운 해', '뜸새 빛' 등을 연속적으로 씌으로써 원관념을 유추하도록 하였다. 이들 보조관념의 원관념을 유추해보자면, 대체로 '희망'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유희춘은 하나의 보조관념을 시의 처음에 제시한 후 이것으로써 마지막까지 내용을 이끌어가는 은유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다음

작품이 이에 해당하는데, 시제는 「墜鴈效西崑體」로 풀이하자면, ‘떨어지는 기러기를 보고 서곤체를 본떠 읊다’이다.

鴈墜龍荒落羽毛	기러기 용황에 떨어지며 깃털 떨어뜨리니
回思羿穀不曾超	생각건대 유궁후예의 화살도 닿지 못하겠네
上林翔集遷金馬	상림원에 날아왔다가 금마문으로 옮겨가고
宦海漂淪隨鐵猫	벼슬의 바다에 표류하다 철묘를 따르네
霄漢已悲追孔翠	하늘을 이미 슬퍼하여 푸른 공작 따르고
榆枋空戀伴鷓鴣	느릅나무 한갓 그리워하며 뱀새를 짝하네
何年喜鵲來傳赦	어느 때에 반가운 까치 와 사면 소식 전할까
江上沙鷗久見招 ²⁰⁾	강 위 갈매기에게 오랫동안 부름 받았네

시제에 보이는 서곤체는 중국 송나라 楊億·劉筠 등이 당나라 李義山의 詩體를 모방하여 『西崑酬唱集』이라는 시집을 남긴 데에서 연유하였다. 시의 수련 1구에서 ‘기러기’를 말하였는데, 이 시어가 바로 시의 내용을 마지막까지 이끄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수련 1구의 ‘龍荒’의 ‘龍’은 흉노족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龍城을 가리키고, ‘荒’은 멀리 떨어진 변방이라는 뜻의 荒服을 가리키는 말로, 북쪽 오랑캐가 출몰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수련 2구에서 말한 ‘有窮后羿’는 옛날에 오랑캐족의 수령으로 활을 잘 쏘았다고 한다. 『淮南子』 「本經」에 따르면, 唐堯 때 열 개의 태양이 함께 떠올라 초목이 말라버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당요가 유궁후예에게 아홉 개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게 하였는데 태양 속에서 산다는 까마귀가 다 죽어 날개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즉, 기러기가 용황에 떨어지며 깃털을 떨어뜨리니 유궁후예와 같은 활의 명수도 쏘아 맞추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함련에서는 기러기가 여기 저기 옮겨 날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먼저 1구에서는 ‘삼림원’과 ‘금마문’을 말하였는데, 전자는 한나라 武帝가 중건한 궁전의 정원 이름이고, 후자는 한나라의 궁궐 문으로 東方朔·主父偃·嚴安 등의 문인들이 황제

20) 柳希春, 『眉巖集』 卷1, 「墜鴈效西崑體」

의 詔書를 기다리던 곳이다. 이들은 보통 조정의 의미로 쓰인다. 2구에서 말한 ‘宦海’는 ‘벼슬의 바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벼슬살이 한 것을 기러기가 마치 바다를 날아다니는 모습처럼 묘사하였다. 경련에서는 기러기가 자신과 뜻이 맞는 새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그렸으며, 마지막 미련에서는 결국 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직접 드러내었다. 즉, 유희춘이 「추안효서곤체」를 지은 시기는 함경도 중성 유배기로 언제쯤 赦免 소식이 전해올까 노심초사한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기러기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시어로 쓰인 ‘기러기’는 바로 유희춘 자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함이 맞다.

2) 詩題를 통한 象徵과 重義性的 추구

유희춘의 시 중에는 제목을 통해 상징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 주려고 한 작품이 있는데, 상징적이기 때문에 단일의 의미보다는 중의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이처럼 독자로 하여금 의미를 중의적으로 파악하게 한 것은 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娼妓歌謠」와 「半畝塘」 등 두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창기가요」를 인용해 본다.

昔在九天上	예전 구천 위에 있을 때
曾陪夫子居	일찍이 낭군을 모시고 살았지요
刺繡學天孫	자수를 천손에게 배우고
爲補青霞裾	푸른 노을로 옷깃을 기웠답니다
黃庭謫人間	황정이 인간 세상에 귀양 오니
榮賤又異閭	영예와 미천함이 또 마을 달리 하네
公如雲際鶴	그대는 구름 사이의 학 같은데
妾乃溝中螭	첩은 곧 구렁 속의 두꺼비랍니다
登瀛步玉署	영주산에 올라 옥서를 걸어보나
豈憶曩相於	어찌 다정한 옛날 기억하시리요
那知五十載	어찌 알았으리, 오십년 만에
惠然乘輶車	초거 타고 찾아주실 줄을

瑤琴奏雲和	요금으로 운화 곡조 연주하니
懷舊不我疎	옛 정 간직하여 날 멀리 하지 않았네
瀟湘逢縱晚	소상강에서 만남 비록 늦으나
蓬島約可虛	봉도의 약속 헛되이 할 수 있으랴
況彼江漢化	하물며 저 양자강과 한수도 변했으니
皎潔返吾初	깨끗하게 내 초심으로 돌아가리라
願爲徑寸玉	원컨대 한 치의 작은 옥이 되어
長作腰間琚	길이 허리 사이의 경거가 되고
願爲非下體	원컨대 무의 뿌리가 되어
日進盤中菹	날로 소반 위의 김치로 올려지리라
一笑三千歲	한 번 웃어보자, 삼천 년의 세월을
聚散浮雲如 ²¹⁾	모이고 흩어짐이 뜬구름과 같구나

「창기가요」는 ‘기생의 노래’로 시제에 의하면, 마치 노래로 불릴 수도 있는 작품이다. 총 24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생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의 내용은 시작한다.

기생은 예전에 九天에 있었고, 여기에서 낭군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수는 하늘님의 손녀에게 배워 푸른 노을로 옷깃을 기웠다고 하며, 낭군을 위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보였다. 그러나 5구부터는 구천에 있던 기생이 지상에 내려와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5구에 나온 ‘黃庭’은 『黃庭經』의 약칭이며, 도교의 仙書로서 신선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곧, 신선과 같은 천상의 기생이 인간 세상에 귀양 오니 낭군과 대비했을 때 영예와 미천함이 나뉘어져 낭군은 ‘구름 사이의 학’이고, 자신은 ‘구렁 속의 두꺼비’라고 비유하였다. 9~10구에서는 신선이 산다는 瀛州山에 올라 玉署, 즉 弘文館을 걸어보지만 다정했던 옛날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기생의 체념어린 속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1구부터는 이전 내용과는 달리 반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곧, 기생은 낭군과 헤어진 지 50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도 낭군이 輶車를 타고 찾아준 것이다. 때문에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13구에서 이러한 상황을

21) 柳希春, 『眉巖集』 卷1, 「娼妓歌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보여주었고, 낭군이 기생 자신을 멀리 하지 않은 것을 말하였다. 15~22구까지는 기생 스스로가 하는 다짐의 내용으로 엮여져 있다. 대강 보자면, 비록 낭군과 오랜만에 만났지만, 옛날에 했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하였다. 또한 기생 자신은 한 치나 되는 작은 옥이 되어 낭군의 허리에 찬 구슬이 될 것이며, 무의 뿌리가 되어 낭군이 먹는 소반 위의 김치로 올려질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낭군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창기가요」는 현상적인 내용만 두고 보면, 어떤 한 기생이 행복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는가 하면,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낭군과 만나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지어진 시기와 배경 등을 고려한다면, 밖으로 드러난 현상적인 모습만이 작품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창기가요」는 유희춘이 함경도 종성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 지은 작품이다. 때문에 여기서의 ‘기생’은 유희춘 스스로를 지칭한 것이요, ‘낭군’은 당시 임금인 明宗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다. 유희춘은 힘든 자신의 처지를 유약한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 나타냈다고 생각하는데, 직설적인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적이거나 자신의 입장으로 알리고 싶은 의중이 숨어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반무당」 작품으로 총 20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무당은 半畝와 半塘의 약어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주희의 시문 「觀書有感」 첫 번째 작품에 ‘반무 방당이 원 거울이 열렸으니,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배회하는구나. 묻노라, 어찌 이렇게도 맑은가. 원두에 활수가 오는 것이 있는 까닭이로다.[半畝方塘—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謂有源頭活水來]’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따온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 또한 존주 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建溪溪邊有寒潭 건계 시냇가에 차가운 못 있어

泓澄凝綠萬象森	푸른빛 영긴 깊은 못에 만상이 펼쳐 있네
光風徐來波不動	맑은 바람 서서히 불어와도 물결 일지 않고
日星雲物無差參	해와 별 구름에도 높고 낮음이 없네
此中查滓無一點	그 속에는 찌꺼기 한 점 없으니
明珠莊底魚浮沈	명주장 아래에 물고기 부침하네
儻非原泉混混來	혹 근원 있는 샘물 칼칼 솟지 않으면
淸冷還濁陽還陰	맑음은 탁해지고 양은 음으로 변하겠지
洙泗濂洛會茲塘	수사염락의 이치 이 못에 모였으니
觀瀾始識淵源深	물결 바라보면 연원 깊음을 알겠네
堪嗟何處無止水	아, 슬프다 어디에 고요한 물 없을까마는
涓涓欲達黃流侵	샘물이 졸졸 흐르려 하면 황톳물 침노하네
泥沙瀕洞孰洵淨	진흙물 밀려오면 누가 씻어 맑힐까
咫尺不映太山岑	지척의 태산도 비추지 못하거늘
我有小沼靈臺下	나의 마음속에 작은 연못 있으니
一脈初從武夷潯	한 가닥이 무이산 물가로부터 왔다네
澄治少懈便不潔	정화를 조금 게을리 하면 불결해지니
下流幽黑不堪臨	하류는 더욱 검어져서 접근할 수 없다네
安得寸膠救大渾	어찌 한 치의 아교로 큰 혼탁함 구제하리
紫陽活水傳至今 ²²⁾	주자의 활수가 지금도 전해오네

이 작품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10구가 처음 부분이고, 11~14구까지가 중간 부분, 15~20구까지가 마지막 부분이다. 1~10구까지는 주희가 제자들을 길러냈던 建溪를 언급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는데, 건계에는 寒潭이 있다고 하며, 한담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러면서 샘물이 쉼 없이 솟지 않는다면 탁해질 것이라고 하여 쉼 없이 흘러가야 함도 강조하였다. 그리고 9~10구에서 洙泗濂洛의 이치가 건계 연못에 다 모이니 연원이 깊음을 알겠노라고 하여 송나라의 유학이 주희 때에 이르러 집대성되었음을 나타내보였다. 11~14구까지의 내용을 보면, 건계에 연못이 있었던 것처럼 어디든지 고요한 물은 있을 것이지만, 샘물이 흐르려고 하면 황톳물이 침노하니 그 흐린 물을 누가 맑게 할 것인가?

22) 柳希春, 『眉巖集』 卷1, 「半畝塘」

하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흐린 물로는 가까이 있는 산조차도 비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5~20구까지는 작자 자신과 관련하여 자신의 마음속에는 ‘小沼’, 즉 작은 연못이 있다는 말로부터 내용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연못은 바로 무이산 물가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작자 자신의 학문적 연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 연못의 물을 정화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불결해진다라고 하여 끊임없는 학문적 탐구 정신을 복돋우고 있다.

이 「반무당」 작품은 시제 자체를 두고 보면, 연못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았다고 할 수 있으나 청정무구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서 중의적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 반무당은 실존한 연못은 아니고, 마음의 상징체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존주 정신을 견지하고자 하는 작자 정신을 나타내었다고 하겠다.

3) 典故를 통한 引喩와 의미의 극대화

앞 장에서 이미 말한 대로 유희춘은 박람강기한 사람으로서 시를 창작함에 있어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그러한 박람강기함은 결국 시에 나타난 전고 운용 실태를 보고서 알 수 있는데, 절구 및 율시, 장시 등 많은 작품에서 전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비록 절구 작품일지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고를 운용하여 마치 한 편의 작품에서 자신의 博學性을 알리려고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고를 통해 풍유법을 활용한 많은 작품을 모두 예시할 수 없기에 전고를 통해 결국 한 작품의 의미를 주도적으로 이끈 몇 가지 경우를 들고자 한다.

먼저 칠언절구의 길지 않은 작품이지만, 전고의 운용을 통해 시를 완성한 사례를 들어본다. 시제는 「嘆墨碎」이다.

鸞膠癩髓煩吳子
璧返珠還控君侯

난교와 달수 구하려면 오자를 괴롭혀야겠고
화씨벽 온전히 하려면 군후를 데려와야겠네

恨不保卿勤十襲 목경을 열 겹으로 싸두지 않아 한스러우니
相看慙愧晏狐裘²³⁾ 너를 봄에 안영의 여우 갖옷에 부끄럽구나

위 작품의 시제를 풀어보면, ‘부서진 먹을 탄식하다’이다. 먹은 文房四友 중 하나로 전통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 중 하나였을 것인데, 사용하던 먹이 어느 날 부서진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을 것이지만, 시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리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 다소 戲謔的인 측면도 있다.

기구에서는 부서진 먹을 붙이기 위해 강력한 아교풀을 찾는다는 뜻의 내용을 담았다. 뿔子是 중국 오나라의 孫和를 가리킨다. 後晉 시대 王嘉가 지은 『拾遺記』에 따르면, 손화가 일찍이 水精如意를 가지고 춤을 추다가 잘못하여 鄧夫人의 뺨을 다치게 하였는데, 太醫가 말하기를, “흰 수달의 골수를 구하여 옥과 호박 가루에 섞어서 이것을 얼굴에 바르면 상처를 흔적 없이 치유할 수 있다.”라 하였다. 난교는 鳳麟州의 仙家에서 봉황의 부리와 기린의 뿔을 섞어 고아서 만든 膏의 명칭으로 이것은 이미 끊어진 弓弩의 줄도 다시 접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접착제라고 한다. 또한 獼髓는 수달의 골수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특효로 알려져 있다. 승구에서는 和氏之璧 고사를 들었다. 『사기』 「藺相如列傳」에 따르면, 화씨벽은 전국 시대 조나라 惠文王이 소유했던 진귀한 구슬이다. 秦나라 昭王이 그 소문을 듣고 탐을 내어 趙王에게 秦나라의 15개의 성과 바꾸자고 청하였는데, 조나라의 藺相如가 화씨벽을 가지고 진나라에 갔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고서야 그 구슬을 온전히 보전하여 조나라로 돌아왔다고 한다. 따라서 시에서 말하는 君侯는 인상여를 말한다. 곧, 이 부분은 유희춘 자신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먹을 온전하게 보전해달라고 인상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다는 뜻을 말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절구에서는 먹을 오랫동안 쓰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었는데, 춘추시대 제나라의 어진 재상인 晏嬰이 여우 갖옷 한 벌을 30년 동안 입은 것에 대비하여 자신은 그렇게 하

23) 柳希春, 『眉巖集』 卷1, 「嘆墨碎」

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다음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작품 「聞造山堡事」를 들면 다음과 같다.

三烽初報警	세 봉화 처음 경보 알리더니
五炬奄來東	다섯 햇불 불현듯 동으로 오네
蜂蠆雖懷毒	벌과 전갈 비록 독 품었으나
熊羆正競雄	웅·비는 씩씩함 다투는구나
劉笳非壯略	유곤의 피리 장한 전략 아니며
薛箭有奇功	설인귀의 화살 기공을 세웠다지
遙想長安聖	저 멀리 생각건대 장안의 성왕께선
應施魏絳忠 ²⁴⁾	응당 위강의 충성을 시행해야 하리

이 작품의 시제는 ‘造山堡의 사변을 듣고’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조산보는 함경북도 慶源에 있는 보 이름으로 당시 외적의 침해를 자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희춘은 조산보에 외적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작품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전고를 이해해야만 한다.

먼저 수련에서는 조산보에 외적이 침입하자 이러한 다급한 사태를 알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세 봉화가 경보를 울렸다는 것은 다급함의 정도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봉화대는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통신수단으로 외적이 침입했을 때 위험 정도에 따라 신호를 단계별로 알렸다. 평시에는 一炬이지만 賊形이 나타나면 二炬로, 또 境에 가까워오면 三炬, 경을 범하게 되면 四炬이고, 接戰이 시작되면 五炬로 표시하는데, ‘세 봉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적이 경계선에 다가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함련 1구의 ‘蜂蠆’와 2구의 ‘熊羆’는 의미상 서로 대립되는데, 전자는 毒蟲으로서 외적을 나타내고, 후자는 외적에 맞서 싸우는 용맹스러운 장수를 뜻한다. 경련의 1구 ‘劉笳’는 중국 쑤나라 惠帝 때의 社稷臣인 劉琨이 불었던 피리를 뜻한다. 『晉書』권62의 「劉琨傳」에 따르면, 유곤이 일찍이 并州刺使

24) 柳希春, 『眉巖集』 卷1, 「聞造山堡事」

가 되어 振威將軍의 직함을 띠고 있을 때 오랑캐가 노략질을 자행하는 晉陽으로 가서 전투를 벌이던 중 오랑캐 기병에게 성이 겹겹으로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유곤은 달빛 아래 누각에 올라가 청아하게 휘파람을 불자 적들이 그 소리를 듣고 처량한 생각에 장탄식을 하였고, 다시 한밤중에 피리를 불자 눈물을 흘리며 고향땅을 간절히 그리워하였고, 새벽녘에 피리를 또 불자 적들은 모두 포위를 풀고 달아났다고 한다. 2구의 ‘薛箭’은 중국 당나라 高宗 때의 장군인 薛仁貴가 쏜 화살을 뜻한다. 『新唐書』 권111의 「薛仁貴列傳」에 따르면, 설인귀는 일찍이 天山에서 10여만의 突厥族을 향하여 화살 세 발을 발사하여 잇달아 세 사람을 차례로 죽이자, 돌궐족이 기가 꺾여서 모두 항복하였는데, 이에 ‘장군이 화살 셋으로 천산을 평정하니, 장사들은 길이 노래하며 한관을 들어가네.[將軍三箭定天山 壯士長歌入漢關]’라고 노래 불렀다는 고사가 전한다. 미련의 2구에서도 전고를 운용했는데, ‘魏絳忠’이란 ‘魏絳의 충성’이라는 뜻으로 위강은 춘추시대 晉나라의 대부로 悼公 때 山戎 無終子가 虎豹를 바치며 화친을 청하니, 위강은 산융과 화친하면 다섯 가지 이로운 점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를 계기로 晉侯는 위강을 시켜 여러 산융과 會盟하게 하였고, 그 덕분에 진나라는 戎患이 그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 시의 내용을 살폈는데, 전고의 이해 없이는 완전한 의미 파악이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율시의 경우, 함련과 경련에서 전고를 운용하고 마는데, 위 작품은 마지막 미련 2구까지 전고를 운용함으로써 이로 인해 의미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작품을 예시로 들어본다. 이 작품의 시제는 「遥謝宋庭筍庭篁」이다.

獨立風沙天一邊	모래바람 날리는 하늘 끝에 홀로 서서
故人書到喜跄然	친구 편지에 발자국 소리인양 기뻐했네
詞鋒不減梅花賦	문필 예봉 매화부에 뒤지지 않은데
科甲何須蟻竹編	장원 급제 어찌 의죽편을 기다리랴

徐晦藍田曾繾綣	서희의 남전 전별 일찍이 곡진하였고
后山儻耳極哀憐	후산의 담이 이별 매우 애처로웠네
何年雷雨湔瑕垢	어느 해에 천둥 비에 때 씻어내고
共作韓張會合聯 ²⁵⁾	우리 모두 한·장 되어 연주시 지을런지

이 작품의 시제는 ‘멀리서 宋庭筍·庭篁 형제에게 사례하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시제와 전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유희춘이 종성 유배 시절 멀리 떨어진 송정순·정황 형제가 편지를 보내왔고, 이에 답장으로 보낸 시가 위 작품이라고 하겠다. 송정순은 호가 勿染亭으로 일찍이 유희춘과 경사를 함께 강론한 바가 있고, 송정황은 송정순의 아우로 1556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갔으나 당시 實勢였던 尹元衡과 뜻이 맞지 않아 결국 등용되지 못하고 죽었던 인물이다. 저간의 사정을 살폈을 때, 유희춘과의 기투합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형제에게서 편지를 받았으니 그 기쁨이 컸을 것을 자명하다.

위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 단서 또한 전고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수련의 1구와 미련의 1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전고를 운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면, 난해한 작품으로 각인될 수도 있다. 먼저 수련에서는 멀리 종성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친구의 편지가 와서 마치 아는 이가 오는 발자국 소리인 양 반가웠다는 의미를 담았다. 여기에서 2구의 ‘喜蹙然’은 외로운 처지에서 知人の 방문이나 소식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 『장자』 「徐無鬼」에 ‘혼자 빈 골짜기에 도망쳐 살 때에 인기척만 들려도 반가울 텐데, 더구나 형제와 친척의 기침 소리가 옆에서 들려온다면 어떻겠는가.[夫逃虛空者 聞人足音蹙然而喜 又況乎昆弟親戚之警欬其側者乎]’라는 내용에서 유래하였다. 함련에서는 송정순·정황 형제의 문장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梅花賦’는 당나라 宋璟이 지은 「梅花賦」를 말하고, ‘蟻竹編’은 陰德으로 과거에 급제함을 이른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헤매는 재미를

25) 柳希春, 『眉巖集』 卷1, 「遙謝宋庭筍庭篁」

보고 장난삼아 대나무를 엮어 다리를 만들어 건너게 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이것은 음덕이다. 훗날 과거에 장원하리라.’ 했다는 말이 『韻府群玉』 권5에 나온다. 경련에서는 송정순·정황 형제와의 이별이 아쉬웠음을 徐晦와 陳師道の 일을 들어 보여주었다. 『唐書』에 따르면, 서회는 당나라 때 山東의 선비로 당시 높은 벼슬에 있던 楊憑과 관련하여 이러한 일이 있었다. 양빙은 친구를 가려 사귀고 氣節을 숭상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그가 京兆尹으로 있다가 御史中丞 李夷簡의 탄핵을 받아 臨賀尉로 폄직되었는데, 그러한 일로 인하여 그후 찾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평소 잘 지내던 서회만이 藍田까지 가서 전별하여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后山은 송나라 진사도의 호이고, 儋耳는 南蠻族의 고장으로 蘇軾이 惠州로 귀양간 지 3년 만에 移配된 곳이다. 소식과 진사도는 사제지간으로 당시 스승을 귀양보낼 때 제자의 슬픔이 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는 송정순·정황 형제를 다시 만나 시문을 주고받을 날을 고대한다는 뜻을 담았다. 2구의 ‘韓張’은 당나라 때의 시인이자 문장가인 韓愈와 張籍을 가리키는데, 장적은 한유의 추천으로 國子博士가 되었으며, 둘은 시문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 유희춘 자신이 송정순·정황 형제와 하루 빨리 만나 시를 주고받고 싶다는 심사를 과거의 옛 문인들을 들어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하겠다. 전고가 시 내용을 이끄는 데 막대한 기능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다음 작품은 위 두 시들보다 더욱더 전고에 기댄 형상이다. 시제는 「答李景晦示文」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誰把和瑜示楚工	누가 보옥을 가져다가 초공에게 보였나
驚看荷出碧潭中	연꽃이 푸른 못에서 나와 깜짝 놀라 보았네
相輕久笑蘇黃態	서로 업신여겨 소·황의 자태 비웃었고
好問深多顏季風	문기를 좋아하여 안·계의 기풍 많았으며
張悅孫吳終受石	장량처럼 손·오를 좋아하여 수석을 면했고
楊耽詞賦悔雕蟲	양옹같이 시부만을 탐하여 조충을 후회했네

欲披雲霧觀天日 구름 안개 헤치고 하늘 해를 보려면
景晦應須景晦翁²⁶⁾ 그대는 응당 회옹을 경모해야 하리

시제에 따르면, 李景晦가 자신이 지은 글을 유희춘에게 보이자 이에 화답하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생각한다. 이경희는 李燾의 자로 1545년 을사년에 ‘역적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유로 파직되고, 1547년 정미년에 慶興에 귀양 갔다가 뒤에 석방되어 돌아왔으며, 벼슬은 이조 정랑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아마도 이경희가 경흥에 유배 시절 종성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던 유희춘을 만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위 작품의 수련에서는 비유법을 활용하여 이염이 유희춘에게 글을 보여준 것을 미화하였다. 즉, 1구의 보옥은 이염의 글을 가리키는 것이고, 2구의 연꽃은 이염의 글이 훌륭함을 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和瑜’와 ‘楚工’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전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어휘로 인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한 화씨지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염의 문인다운 면모와 유학자다운 면모를 각각 부각시켰는데, 전자는 송나라의 문인인 소식과 黃庭堅에, 후자는 공자의 제자인 顏淵과 季路에 각각 빗대었다. 경련에서는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인 張良과 揚雄을 등장시켜 이염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렸다. 다시 말해, 1구에서는 兵法에 관심이 있었음을, 그리고 2구에서는 양웅과 같이 文詞나 지었던 것을 후회했음을 말하였다. 1구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관련된 전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량은 일찍이 下邳의 다리 위에서 黃石公이라는 노인에게서 『太公兵法』을 받고 익혀서 한나라 高祖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데 일조했던 인물이다. 손오는 孫武와 吳起를 병칭한 것으로 여기서는 병법의 대명사처럼 쓰였다. 受石은 중국 湖北省 穀城縣의 南河에 있는 돌의 이름으로 그 石根은 죽엽과 같고 황색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본 사람은 흥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 때문에 수석은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결국 1구에서는

26) 柳希春, 『眉巖集』 卷1, 「答李景晦示文」

이염이 장량처럼 병법을 익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무사했다는 뜻을 담았다. 미련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거든 반드시 남송의 유학자인 朱熹를 경모할 것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었다. 1구와 관련해서 『世說新語』에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썸나라 장수인 衛瓘이 尙書丞이 되었을 때에 樂廣이 조정의 명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기특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람 중의 水鏡이라 만나보면 운무를 헤치고 청천을 본 것 같다.’ 라고 했다 한다. 이로써 마지막 부분까지 전고가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표현 기법에 대한 시각과 의의

수사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수사는 문학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 표현 방법 및 기법적인 측면과 연결되는데, 작품이 예술성, 문학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유희춘은 자신이 가진 생각을 시를 통해 드러내었는데, 여러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많은 수사적 기법 중에서도 은유와 상징, 인유 등의 기법을 활용했음을 보였는데, 이들 세 수사 기법이야말로 수사법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놓일 수 있는 것들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은유는 비유법의 하나로서 연결어가 없이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려는 고도의 집중력이 없다면, 작자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상징은 원관념은 숨은 상태에서 보조관념만 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은유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의미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 인유는 인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시의 경우 작자의 博學多識을 알게 해주는 한 부분이기도 하며 작품의 의미 파악을 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에게 때로는 난감함을 안겨주

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유희춘은 시 창작을 함에 있어 이러한 인유의 방법을 광범위하면서도 깊이 있게 활용하여 다른 문인의 시와 대비했을 때 난해함은 더한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유희춘의 시를 아는 최대의 관건은 전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아는 것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인유법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희춘은 이러한 수사적 표현 기법을 의도하고 작품을 지었을까? 아니면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작품을 지었을까? 결론은 의도하고 지었다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수사적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 작자의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유희춘의 282수의 시는 『미암집』 권1과 2에 편집되어 있는데, 전자에는 120제 126수, 후자에는 123제 156수가 있다. 권1과 권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배 시절에 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즉, 권1은 유희춘이 함경도 종성 유배 시절에 지은 작품으로 모두 채워져 있으며, 권2는 몇 작품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해배 후 복직한 후에 지은 것으로 이 둘은 작품 창작의 시공간의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점에서 확연한 변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권1과 2의 수사적 활용 빈도수의 차이인데, 앞의 2장에서 인용한 시를 근거해 보더라도 수사적 기법을 주로 활용한 작품이 권1에 소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을 서술하던 중에 인용한 작품 수는 총 13편인데, 그중 「更思留住德峯下不爲遷居計示成仲」을 제외한 12편이 모두 권1에 소재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유희춘은 유배 시절에 지은 작품에서는 수사적 기법을 적극 활용했지만, 해배 후에 지은 작품에서는 대체로 수사적 기법을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된 연유를 추측해보자면, 유배지에서 작품을 창작할 때 直敍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심리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 작품을 창작할 때마다 깊은 사려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었고, 밖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문학적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문학적 장치가 바로 수사적 표현 기법이 된 것이고, 많은 수사적

기법 중에서도 은유와 상징, 인유 등을 끌어다 썼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희춘은 주지하다시피 문인이면서도 학자적인 면모가 강하여 그동안 시 작품에 대한 문예적인 평가를 특별히 하지 않았었다. 문예적인 평가라는 것은 결국 문학성 및 예술성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경세적인 모습이 두드러져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희춘의 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히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의 경우, 수사적 표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문학성 및 예술성을 어느 정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수사적 표현 기법 자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문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희춘의 학자적인 면모만 부각시키면서 시를 裁斷한다면 작품을 온전히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적어도 유희춘의 시를 바라볼 때는 이러한 표현 기법에 유의해서 바라보아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희춘이 살았던 16세기는 학문과 문예가 막 융성하게 꽃피던 시절로 학자적인 기질을 가졌던 작자가 시를 창작할 때는 문예적 장치가 특별히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다. 때문에 유희춘을 학자로 보면서도 한편, 문예 기질이 풍부한 문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대변해주는 것이 수사적 표현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희춘에게 있어 수사적 표현 기법을 활용한 작품은 최고의 문예미를 자랑하는 것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4. 맺음말

본 논고는 眉巖 柳希春(1513~1577) 한시에 나타난 수사적 표현 기법 양상을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의를 구명해보고자 작성되었다.

『미암집』 권1과 2에는 총 282수의 시가 수록 정리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표현 기법이다. 유희춘의 시에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도 있지만, 시를 형상화함에 있어 수사적 표현 기법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원관념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관념을 끌어다 활용하는 비유의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전고를 운용하고 있음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표현 기법에 치중하여 유희춘의 시를 분석, 정리하여 이러한 문학적 장치가 궁극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려고 하였다.

유희춘이 시를 형상화함에 있어 주로 활용한 수사적 표현 기법으로는 隱喩와 象徵, 引喩 등이 있었다. 유희춘은 시에서 은유적 표현 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하였는데, 첫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뚜렷하게 연관되는 경우, 둘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보조관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셋째 한 작품 안에 여러 보조관념이 나와서 결국 원관념을 유추하게 하는 경우, 넷째 한 작품 안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보조관념이 연속으로 나와 마찬가지로 원관념을 유추하게 하는 경우, 다섯째 하나의 보조관념을 시의 처음에 제시한 후 이것으로써 마지막까지 내용을 이끌어가는 은유의 기법을 활용하는 등등 의미를 전달하는 기법이 실로 다양함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미암집』 권1에 소재한 「戲投羽溪」, 「直木吟」 등을 들었다. 또한 유희춘의 시 중에는 제목을 통해 상징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려고 한 작품이 있는데, 상징적이기 때문에 단일의 의미보다는 중의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이처럼 독자로서 하여금 의미를 중의적으로 파악하게 한 것은 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娼妓歌謠」와 「半畝塘」 등 두 작품이

이에 해당되었다. 마지막 유희춘은 박람강기한 사람으로서 시를 창작함에 있어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그러한 박람강기함은 결국 시에 나타난 전고 운용 실태를 보고서 알 수 있는데, 절구 및 율시, 장시 등 많은 작품에서 전고가 나와 비록 절구 작품일지라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본 논고에서는 전고를 통해 풍유법을 활용한 많은 작품을 모두 예시할 수 없기에 전고를 통해 결국 한 작품의 의미를 주도적으로 이끈 몇 가지 경우를 들었는데, 예로 든 작품으로는 「嘆墨碎」, 「聞造山堡事」 등이다.

유희춘은 자신이 가진 생각을 시를 통해 드러내었는데, 여러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수사적 기법을 활용했음을 확인하면서 유희춘은 이러한 수사적 표현 기법을 의도하고 작품을 지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유배기에 유달리 수사적 표현 기법을 활용한 점에 주목하면서 유배지에서 작품을 창작할 때 直絀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심리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한 작품을 창작할 때마다 깊은 사려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었고, 밖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문학적 장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희춘을 학자로 보면서도 한편, 문예 기질이 풍부한 문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대변해주는 것이 수사적 표현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희춘에게 있어 수사적 표현 기법을 활용한 작품은 최고의 문예미를 자랑하는 것으로서의 의의를 지녔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國朝寶鑑』

『石潭日記』(李珣)

『文心雕龍』

『眉巖集』(柳希春)

『佔畢齋文集』(金宗直)

『周禮』

『虛白堂文集』(成倪)

김동수, 『시적 발상과 창작』, 천년의 시작, 2008, 95쪽 / 102~103쪽.

박명희, 「미암 유희춘 시에 구현된 尊朱子 의식」, 『국학연구론총』 제9집, 태민국학연구원, 2012, 279쪽.

_____, 「眉巖 柳希春 시문의 典故 運用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40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12.

_____, 「眉巖 柳希春의 詠史詩에 나타난 思惟와 지향」, 『한국언어문학』 제82집, 한국언어학회, 2012.9, 172쪽.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23&docId=940080&mobile
&categoryId=3423](http://terms.naver.com/entry.nhn?cid=3423&docId=940080&mobile&categoryId=3423)

투고일 : 2013년 7월 15일, 심사 : 2013년 7월 24일~8월 9일, 게재확정 : 8월 9일

<Abstract>

The Rhetorical Medium in Miam Yoo Hui-Choon's Poetry

Park, Myoung-hui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the rhetorical medium shown in Chinese poetry by Miam Yoo Hui-Choon and its meaning,

Vol. 1 and Vol. 2 of the 『Miamjib』 hold a total of 282 poems and what is noteworthy is the medium. Yoo Hui-Choon sometimes used rhetorical expressions to configure poetry while he used straightforward expressions which are easy to understand. He used a different concept metaphorically to deliver original concepts. Also, he applied a number of ancient cases and historical facts.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his poetry focusing on the medium he used to speculate on what he finally achieved through its use.

Yoo Hui-Choon usually applied metaphor, symbolism, and allusions to configure his poetry. He used a variety of metaphorical methods: First, when an original concept is definitely connected with a secondary concept; Second, when a situation is not clearly understood as the secondary concept is not clear; Third, when the original concept has to be inferred as there are a few secondary concepts in a poem; Fourth, when the original concept has to be inferred as there are a few secondary concepts with similar meaning in a poem; Fifth, after a secondary concept is presented in the beginning of the poem, it is used to develop the poem to the end as a metaphorical technique. Also he

intended to show something in a symbolic way through the titles of his poetry. As it is symbolic, it has double meaning. Finally, he exerted his outstanding intellectual ability in writing poetry. Such ability is discovered through his application of ancient events and cases.

He showed his thoughts in his poetry, which were discovered in a number of his poems.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d that he intentionally used the rhetoric medium for his poetry as a scholar and literary person. So his poetry which uses a rhetorical medium has a proud literary beauty.

Key words : Miam Yoo Hui-Choon, 『Miamjib』, Rhetorical Medium, banishment, metaphor, symbolism, allusions, authentic precedent